

지역 소식통

정읍시, 식중독 예방 총력

정읍시는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관리와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최근 유관기관 7개 부서가 참석하는 '식중독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잠정 연기상태였으나,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 도래함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진행을 결정했다.

회의는 전년도 추진성과 발표와 올해 식중독 예방계획 보고로 시작했다.

이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외식업협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교육청, 어린이집 연합회 등 관련 단체·기관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식중독은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별 관리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집중관리업소에 대해서는 민관 특별합동점검과 민간단체의 자율지도 등도 실시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미꾸라지 치어 방류

부안군에서는 최근 종자방류 관계자 행정 공무원(수생생태팀장 외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꾸라지 치어 2만여 마리를 부안을 신원천에 방류했다.

이번 방류하는 미꾸라지 종자는 전라북도 민물고기시험장에서 4~5월에 확보한 어미 중 건강 상태가 우수한 개체를 선별해 특허받은 자체 기술로 육성 한 4cm이상의 건강한 종자로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원에 기여하며, 하천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 할 전망이다.

미꾸라지는 연간 1만톤 상당 국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산종자 방류 품종으로 지역민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신원천은 행안부가 주관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전국 공모전에서 최우수 소하천으로 선정된 바 있고 생태하천 복원으로 지역의 랜드마크화와 함께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한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경계분쟁 해소

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위원회 심의·의결 상동 1-1지구 297필지 등... 토지 활용가치 상승 기대

정읍시는 22일 오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사업지구 경계 결정과 지난 해 사업지구의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 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배근 위원장(전주지방방법원 정읍지원 판사)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상동 1-1지구 297필지 5만9,223㎡에 대한 관련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지적 불부합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상동대은사사랑병원 간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작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장명상동지구, 신대인2지구, 신대인 2-1지구에서 접수된 이의신청 58필지에 대해서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와 현장 재확인 후 경계를 확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에 따라, 시는 경계 확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정리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3개 지구는 성공적인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유진섭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형화, 맹지 해소 등 불편이 해결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도해 지적의 좌표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모항 및 위도 해수욕장이 정부가 꼽은 이용을 권장하는 해수욕장 25선에 선정됐다.

부안 모항·위도 해수욕장 정부 '이용권장 25선' 선정

휴가철 북비는 곳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중·소형 꼽아

부안 모항 및 위도 해수욕장이 정부가 꼽은 이용을 권장하는 해수욕장 25선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해수욕장들은 주변에 주차장과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가족단위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해수욕장들로 지자체의 추천과 해수욕장 이용여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여름 휴가철 이용객들이 북비는 대형 해수욕장보다는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을 권장하기로 하고 이번에 선정된 해수욕장에 대한 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모항과 위도 해수욕장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 향상과 함께 이용객이 예년보다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이용객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내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 이용권장 해수욕장에 부안지역 해수욕장이 2곳이나 선정돼 전국적인 홍보 효과와 함께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공직자 친절마인드 키우는 '청내방송' 눈길

직원들 라이브 방송 코너 도입 미담 사례·동료 격려 등 나눠

정읍시가 민선 7기 시민 소통과 감동시정 구현을 위해 직원 '친절행진'에 힘을 쏟고 있다.

따뜻한 민원 응대를 통해 민원인에게 시의 밝고 부드러운 이미지 제공과 함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의지다. 관련해 시는 매일 아침 진행되는 공직자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내방송에 직원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코너를 도입하는 이벤트 방송으로 직원의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벤트 청내방송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55분부터 9시까지 약 5분 간 진행된다.

각 부서의 직원들이 릴레이로 참여하며 친절 미담 사례, 동료 직원 격려, 시 주요사업 홍보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2일 첫 번째 이벤트 방송에는 유진섭 시장이 게스트로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정읍시는 매일 아침 진행되는 공직자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내방송에 직원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코너를 도입했다. 22일 첫 번째 이벤트 방송에는 유진섭 시장이 게스트로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유 시장은 코로나 19로부터 청정 정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과 취임 2년을 맞이한 소회를 전했다.

이어 직원들이 미리 작성한 질문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답변하는 등 진솔

한 모습으로 직원들에 다가갔다. 유 시장은 "시민 공감 시정의 시작은 공직자의 작은 친절에서 비롯된다"며 "밝고 따뜻한 민원 응대로 희망 정읍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인플러스, 10년째 취약계층에 싱크대 지원 훈훈

고창군 아산농공단지에 위치

고창군 아산농공단지 주방가구 전문업체(주)인플러스가 10년째 취약계층에 싱크대 교체 등을 지원해주시는 진정된 감동을 주고 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주)인플러스는 고창군청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싱크대가 파손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 4명을 선정해 가구당 150만원 상당의 싱크대를 무상으로 설치 지원했다.

(주)인플러스는 2010년 11월 고창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매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의 주방가구(싱크대)를 교체 지원해주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주)인플러스 송미연 대표는 "군민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때에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주)인플러스는 고창지역 장애우 고용과 관내 복지시설 지원, 희망나눔 캠페인 기부, 지역언제개발을 위한 장학금 기탁 등 기업의 사회 환원에 앞장서 참여해 오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해수욕장 방역·안전관리 요원 16명 모집

고창군이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응과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요원 선발인원은 모두 16명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주소지가 고창군에 등록되어 있고, 인명구조 자격증 또는 물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소지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군무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7월9일부터 8월16일까지 39일간이다. 보수는 하루기준 12만원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과 2시간 이내 연장근로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별도 지급할 방침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군청

해양수산과에 직접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고창군은 정부의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 권장 정책과 코로나19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 해수욕장 방문으로 이어져 지난해에 비해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고창군청 라남근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 방역 등 추가 업무수요 발생에 따른 해수욕장 운영·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병행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업무에 중점을 두어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